

“기업유치와 旣(기) 투자기업 지원에 올인”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기업 ‘이피캠텍’ 찾아… 투자이행 상황 점검·향후 산업발전 방향 논의
중국 이차전지 제조기계 기업 대표·상해 한국상회 이준용 회장 초청… 전북 투자환경 소개·협력 가능성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에는 기업 유치와 함께 그동안 유치해 온 기업의 실질적 투자이행과 원활한 기업 운영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텍(주) 본사를 방문해 투자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같은 날 중국 이차전지 제조기계 기업 SINVO의 빈싱 대표와 상해 한국상회 이준용 회장을 초청해 전북 투자환경을 소개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피캠텍(주)은 2007년 설립된 이차전지 전해질 제조 전문기업으로, 2023년 새만금산단에 2공장 투자를 완료하고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총복 음성에 위치한 본사를 군산으로 이전해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피캠텍(주)의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새만금의 선도적 투자 기업으로서 약속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주시 것에 감사하다”며 “이피캠텍(주)의 성공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을 방문한 중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 SINVO의 빈싱 대표, 이준용 상해 한국상회장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법인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김관영 도지사는 2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이차전지 전문기업 이피캠텍(주) 본사를 방문해 투자이행 상황을 점검 및 향후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유치에 성공하고 있으며, 24개 기업이 이미 입주하거나 협약을 체결했다.

SINVO는 중국 심천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관련 기업 SINVO의 빈싱 대표, 이준용 상해 한국상회장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새만금은 법인세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

전북자치도는 2025년을 기업유치와 투자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투자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신규 투자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내의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새만금을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도,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 개최

2025년 운영계획·주요 아젠다 논의… RE100 실현 위한 민·산·학·연·관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운영계획 및 주요 아젠다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2024년 5월 출범 이후 에너지정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4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혁신적인 에너지솔루션 개발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번 운영협의회는 2024년 말 각 분과의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목표와 실행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각 분과의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국내외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 20개 신규 참여기관에 가입증서를 전달하며, RE100 얼라이언스

참여기관 확대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앞으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는 △참여기관 확대(100개 이상) △대선·충선 공약사업 발굴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각 분과별로 사업화 기술 개발 등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배주원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

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성장하고, 지역 경제와 에너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E100 달성을 위한 글로벌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 본격 활동 시작

대학 교수·변호사 등 23명 전문가로 구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이희승 세정

과장,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 23명과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 2명을 포함해 총 25

명으로 구성됐다. 위촉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이 매월 회의를 개최하며, 향후 2년간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위원회 임기 동안 지방세심의

위원회는 지방세 불복청구와 체납자 정보공개 등 총 105건의 지방세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도내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위법·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지방세 제도 발전과 세무 행정 신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안전 19건 의결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과 ‘익산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전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8천ha 감축은 농촌 경제 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농민들의 생존권, 더 나아가 국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영농권 침탈하는 쌀 재배 강제 감축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박철원 의원)을 채택했다.

이날 5분발언에서 최종오 의원은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 도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선 의원은 익산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김충영 의원은 익산시 획기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책 수립을, 정영미 의원은 부송동 관광호텔 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경호 의원은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한 부실한 사전검토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강경숙 의원 방학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 만들기에 관해 발언했다.

한편, 본회의 후에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역량 제고에 기여한 우수 정책지원관 3명(문명균, 이미란, 노성훈)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군정 현안 대안 제시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새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조례안’ 등 6건을 처리했으며, 지난 17일부터 3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했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투라 의원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옥 의원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우리군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동창욱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반영으로 내실 있는 군정업무추진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이날 폐회에 앞서 김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소년 도박 근절, 함께 해요”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 릴레이 챌린지 동참

이연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해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재범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연주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놀이가 아



닌,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연주 위원장은 전북경찰청장의 지명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학수 전북지방방변사회장을 지목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식품허브,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도전

풀무원-새만금청-도-군산시, 김 양식 사업지원 전략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1일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 최초 육상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풀무원과 전북자치도, 군산시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주관 ‘지속 가능한 우량 김 종자생산 및 육상양식 기술개발’ 공모에 참여하는 풀무원의 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확대를 목표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 글로벌 규제 강화 등 김 양식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육상 김 양식 기술과 표준매뉴얼 개발로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공모(1월 13일~2월 17일)를 추진 중이다.

이날 풀무원은 현재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고부가가치 김 융·복합 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연내 착공과 준공 등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은 풀무원 상임자문(전·前) 기술연구원장은 “풀무원은 2021년 세계 최초로 김 부문에서 ‘ASC+MSC’ 인증과 ‘ASCc’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라면서 미래 식품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키웠다.

또한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만금에서 어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육상 김 양식 상생모델을 만들어 어업인이 김을 양식하고, 풀무원은 이를 구매해 제품을 생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풀무원과 협력해 온 지자체 관계자들도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팀장은 “도와 풀무원은 2022년부터 육상 김 양식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해양수산부의 알앤디(R&D) 공모과제에 도전하여 어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양식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새만금개발청 조흥남 차장은 “글로벌 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풀무원의 위대한 도전은 작년 풀무원의 새만금 입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면서, “새만금이 풀무원과 함께 전 세계에 ‘육상김, 새만김’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고, 기업과 어업인과의 상생도 적극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 이어갈 것”

쌀전업농 전북자치도 연합회, 도내 취약계층을 위해 쌀 나눔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손길로 쌀 200포(10kg), 6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이호석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 이원일 수석 부회장, 이우식 사업 부회장, 그리고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는 올해 처음으로 쌀 기부를 시작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기탁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석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 연합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선사하

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나눔쌀을 기탁해 주신 한국쌀전업농 전북 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